한국 건축계의 세계화와 한국화

Internationalization and Nationalization of Korean Architecture

양상호 / 탐라대학교 건설도시공학부 교수
by Yang Sang-Ho

2002한일월드컵에서 우리가 했던 응원문화는 가히 세계최고라 할 수 있다. 이것은 축구만이 아니라 스포츠 응원문화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도 있다. 이 응원문화를 선도했다고 할 수 있는 "붉은 악마(Red Devil)"클럽 초기 회원의 말이 인상적이다. 붉은 악마의 결성은 일본보다 뒤늦은 것이어서, 자칫하면 일본의 응원단인 "울트라 닛본(Ultra Nippon)"의 응원내용을 본의 아니게 흉내 낼 수도 있기 때문에 일본의 축구경기를 관람하면서 그들이 하는 응원내용을 전부 살폈다는 것이다. 그리곤 붉은 악마들은 울트라 닛본이 하는 것은 무엇 하나 따라하지 않았다는 얘기였다. 그런 것이 오늘날 유명한 붉은 악마의 응원이다

이렇듯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계발하여 세상에 알리고 그것이 다시 세계의 표준이 되는, 이른바 "세계화(世界化)"가 그리 쉬운 일만은 아니다. 또 대부분은 앞서간 남들이 하는 내용을 따라 하면서 우리의 실정에 맞게 조금씩 고쳐가는, 이른바 "한국화(韓國化)"의 과정을 거치면서 정착해 간다.

한국사에서 "근대화"라는 개념이 아직 명확하게 정의되지는 않고 있지만, 흔히 비서구사회에서는 "근대화=서구화"의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여기서의 근대화는 서구의 사회현상을 규범으로 삼는 시기의 일로서, 그 모델은 항상 서구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탈근대(Post Modern)하면서 탈서구(脫西歐)하려는 기운이 강해지는 것도 사실이다. 다시 말해,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알기 위하여 스스로를 뒤돌아보고 자기만의 고유성을 만들어내려는 경향이 강해졌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주장으로 에드워드 사이드(Edward W. Said)의 "오리엔탈리즘(Orientalism)"이나 일본에서 나왔던 "內發的 發展論" 등을 들 수 있으며, 최근에는 이마저 극복하려는 시도(姜尙中, 『オリエンタリズムの彼方へ』, 1996)들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우리 건축계의 경우는 과연 어떤가' 라는 의구심을 매우 강하게 갖게 된다.

IMF금융위기 이후, 민간건축보다는 공공건축의 건설이 눈에 띄게 많아진 감이 있다. 또 이들 공공건축은 대부분 현상설계에 의해 결정되는 것도 사실인 듯 하다. 현상설계에 의해 작품을 선정하다 보니, 본질적 고민의 흔적이 많은 개성이 강한 작품보다는 보편적인 형태의 작품이 선정되기가 쉽다. 실험적이거나 자극적인 작품보다는 누가 보아도 무난한 작품이 선택되는 것이다. 그렇다 보니 무난한 작품을 출품하게 된다. 대담한 형태나 새로운 소재표현 등 의욕적이지 않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누군가가 이미 했던 것을 응용한 듯한 느낌의 것들이 많다는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건축적 이상을 갖지 못하고 방황하는 이 시기에 건축에 관한 본질적 의문을 제기하며 21세기의 건축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한 작품들을 좀처럼 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19세기 서구의 리바이벌리스트들이 추구했던 건축에 대한 본질적인 물음과 고민에 대한 예를 들어 생각해 보자. 서구의 19세기는 "사회"의 존재와 "개인"의 존재가 대립하여 사회적 통념의 압력이 컸던 시대로서, 개인의 순수한 "사변적 객관성"보다는 "사회적 객관성"이 더 요구되는 시기였다. 사회적 객관성이 요구되면서, 19세기의 건축가들은 새로운 주장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상품을 갖고 있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된다. 즉, 사회가 하나의 건축적 이상을 갖고 있지 않는 한, 건축가는 자신의 이상을 사회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또 사회가 평가할 수 있는 형태로 표현해야 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더욱이 Patron과 건축가와의 개인적인 관계는, 귀족계급인 Patron의 쇠퇴와 함께, Professional로서의 건축가와 공공사회와의 관계로 변해 간다. 이에 따라 재료의 진실, 디테일의 진실을 요구하게 된 시대가 19세기인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J. Ruskin, A.W.N. Pugin, E. Violet-le-Duc과 같은 리바이벌리스트들은 Gothic을 재해석하면서 각각 건축의 사회적 윤리성, 종교적 윤리성, 합리적(구조적) 해석을 강조하며 건축의 본질을 설명하기 위해 노력한다. 시대의 변화와 건축적 변화의 당위성을 통찰한 건축가들의 노력이 힘차게 시도되며, 이것은 후일에 명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한 세기가 훨씬 지난 최근에도 위와 유사한 논의가 있음도 주목할 가치가 있어 소개하자. 1994년 11월에 일본의 나라(奈良)에서 열린 "문화유산보존을 위한 나라회의(文化遺産保存のための奈良會議)"에서 역사유산의 진실성에 대하여 논의된 바가 있다. 이전까지 이루어진 바로는 건축의 진실성(Authenticity)은 "재료 · 디자인 · 기법 · 장소"가 그 내용이었으나, 나라회의에서는 진실성의 내용이 확대되어, 「형태와 디자인(form, design)」「재료와 물질(material, substance)」「용도와 기능(use, function)」「전통과 기법(traditional, techniques)」「장소와 배경(location, setting)」「정신과 감정(spirit, feeling)」의 요소들이 제기되었다(鈴木博之, 『現代建築の見かた』, 1999 참조). 이것은 현대건축이 미미하나마 변화를 보이며 새로운 건축관을 나타내는 일로서 흥미롭다. 특히, 전통, 기법, 장소, 배경, 정신, 감정 등은 근대건축에서는 흔히 배제되었던 요소로서, 현대건축과 우리의 정신, 또 건축과 도시와의 조화로운 관계를 형성하게 하고, 결국 고유성을 재발견하는 방향으로 가게 하는 요소들인 것이다.

이와 같이 건축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나 논의들은 세계 각 지역에서 수없이 이루어지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것들은 앞으로 21세기를 살아야 할 우리들, 그리고 우리의 후배들에게는 많은 교훈을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동안 전통이니 한국성이니 하며 우리의 것을 찾고 알기 위한 논의와 노력이 활발했었고, 명쾌한 결론은 아직이지만 논의과정에서 얻어지는 그 나마의 성과들이 있었음은 분명하다. 앞서 예시한 전통, 기법, 장소, 배경, 정신, 감정 등 고유성의 재발견을 방향짓는 요소들은, 실제 거론의 여부를 떠나, 전통이나 한국성 등을 논의하는 과정의 중심테마였기 때문이다. 이것은 논의자체만으로도 충분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일이기도 하다.

하지만, 건축계에서 아카데미즘이 쇠락해진 최근 몇 년간은 외국에서 건축디자인을 수련한(?) 국내외 건축가들이 많은 미디어를 차지하며 상대적으로 많은 영향력을 갖는 것 같아, 어째 그동안의 전통이니 한국성이니 하는 것은 괜한 소란이었나 하는 느낌마저 들기도 한다. 더욱이 건축의 진실성이 디자인만이 아니라, 앞에서 이미 예시한 많은 요소들을 내포하고 있음을 생각한다면 더더욱 그러하다. 지난해 건축대전에서 야기되었던 소란도 이런 맥락에서 파악할 수 있지는 않을까. 물론 외국에서 수련했다 하여 전통이나 한국성을 무시하거나 고민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다만 건축에 관한 본질적 이해는 외국의 것에 가까워있지 않겠는가 하는 편견에서 해보는 소리다.

또 얼마 전부터 거론되고 있는 건축사단체의 복수설립문제도 마찬가지로, 건축의 본질적 문제보다는 건축외적인 요인에 의해 야기된 문제로 파악된다. 건축의 본질적 문제를 두고 격론을 벌이다 복수의 학파나 유파가 생기는 것은 오히려 바람직하다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건축사단체의 문제는 그렇지는 않은 것이기에 썩 보기가 좋지 않다.

요즘 우리 건축계는 건축설계시장의 개방을 맞아 대비하려는 움직임과 함께, 대학의 건축교육시스템까지 변하고 있다. 경제상황의 막강한 지배력 앞에서 무력해지는 현상이 두드러지는데다, 애국심이라는 울타리도 보호정책이라는 우산도 별 소용이 없는 "세계시장"의 망망한 공간 속에 우리 건축계가 놓이게 될 것이어서 이에 대한 우려와 걱정이 만만하지 않은 것이기에, "세계화된 우리의 건축", 그리고 "한국화된 세계의 건축"을 하루빨리 정립시키는 일이 우리 건축계가 해야 할 급선무임을 지적하고 싶다. 더불어, 건축가를 비롯한 특정소수를 위한 건축보다는 잠재적 건축주인 일반 시민을 위한 건축을 해야 하며, 건축가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주장보다는 일반 시민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주장을 해야 함을 덧붙이며, 최초에 가졌던 필자의 의구심이 한낱 기우로 끝나기를 기대한다. ▣